

평상의 이 마음은 언어도단의 마음, 이것이 도(道)



마조 대사가 열반한 보봉사에서는 지금도 재가불자들이 법복을 입고 예불을 한다.

보봉사 ①

산문인 폐방 중앙에 마조도량(馬祖道場)이란 글씨 글씨가 순례자 일행을 반기는 것 같다. 남악 형산 마경대에서 출발한 순례가 마침내 눈부신 회향의 계단에 오른 느낌이다. 마조 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복암사 마경대에서 1차 순례를 시작하여 몇 달 만에 다시 중국 땅을 밟은 2차 순례의 대단원에서 마조 대사가 열반했던 보봉사(寶峰寺)에 와 있기 때문이다.

산문 양 벽에는 즉심시불 비심비불(即心是佛, 非心非佛)이란 법어(法語)가 오석에 새겨져 있다. 즉심시불의 공안에 얽힌 낯익은 선화 하나가 떠오른다. 마조 대사의 제자인 대매 법상의 선화다. 대매 스님은 호북성 양양현 사람으로 절강성 명주에서 살았는데, 형주 옥천사로 출가하여 득도했다고 한다. 이후 대매 스님은 수많은 경전을 본 뒤 경론을 강의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으나 스스로 위화감에 깊이 번민하다가 드디어 도를 찾아 만행에 나섰다. 마조 선사를 참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조 대사를 만난 대매의 첫 물음은 이것이었다.

“설령 비심비불이라 해도 나는 즉심시불일 뿐이네.”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대매가 당돌하게 다시 물었다.
 “그것은 어떻게 체득합니까?”
 “빈틈없이 지켜나가야 한다.”
 경론에 해박한 대매는 주저하지 않고 또 물었다.
 “밥이란 무엇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또한 그것이다!”
 “달마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지.”
 “그럼 달마에게는 아무런 의도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부족한 것 아무 것도 없는 그 마음을 간파하게!”
 비로소 대매는 크게 깨닫게 된다. 더 물을 게 없어졌다. 대매는 석장을 짊어지며 구름이 걸려 있는 대매산을 올라갔다. 그런 뒤 두 번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뒷날 열반화상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대중 가운데 한 스님이 주창자로 쓸 나무를 찾아 대매산을 올랐다가 길을 잃게 되었는데, 마침 그 스님이 풀웃을 입은 산사람을 만났다. 풍지머리를 한 그 산 사람은 나와지봉의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산사람이 말했다.

“나도 마조 스님을 본 적이 있소.”
 이에 길을 잃은 스님이 물었다.
 “여기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몇 년이나 됐을까, 사방의 산이 푸르렀다가 노래지고, 다시 푸르렀다가 노래지는 것만을 보았소. 이력저력 한 30년은 됐을 거요.”
 “마조 대사 회상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마음이 곧 부처(即心是佛)!”
 길을 잃은 스님이 길을 묻자, 대매는 골짜기의 물을 따라 가라고 가르쳐 주었다. 무사히 돌아온 그 스님이 열반에게 전후 사정을 다 고했다. 그러자 열반이 말했다.

“내 기억으로는 강사에 있을 때 어떤 중이 마조 스님께 불법과 조사의 뜻을 물을 적이 있었지. 그때 마조 스님께서 ‘자네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30여 년 동안 그 중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 아마도 그 중일 것이야.”

그런 뒤 열반은 대중 가운데서 몇 사람을 불러놓고 그를 찾아가 만나게 되면 ‘마조 스님은 요즘은 비심비불(非心非佛)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윽고 대중 스님들이 대매를 찾아가 열반이 일러준 대로 말했다. 그러자 대매가 말했다.

“설령 비심비불이라 해도 나는 즉심시불일 뿐이네.”
 이야기를 전해들은 열반이 탄복하여 말했다.
 “서산의 매실이 잘 익었군! 너희들은 이제 그리로 가서 마음대로 따먹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연유로 하여 대매를 찾는 대중이 2, 3년도 안 되어 수백 명에 이르렀다는 것이 즉심시불 비심비불에 얽힌 선화다.
 대웅보전 앞뜰에 분홍빛 박태기꽃이 환하게 불을 켜고 있다. 내 산방의 박태기꽃은 아직도 꽃눈이 감

겨 있는데, 보봉사가 자리한 정안현 보봉향 석문산은 봄꽃들이 만개해 있다. 자목련은 꽃봉오리가 부풀어 있고, 새들의 헛바닥 같은 금목서 은목서 새잎들은 만화방장이다. 어느 자리이건 봄은 우리 마음에도 물기가 돌게 하여 신심의 새싹을 듣게 한다.

모래처럼 꾸미지 말고 도를 따로 구하지 말라

보봉사도 상전(桑田)이 벽해(碧海)로 바뀐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중창불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절의 규모가 놀랄 정도로 달라진 모양이다. 수불 스님이 옛 보봉사를 떠올리며 회상에 잠긴다.

“90년대 초쯤에 보봉사를 처음 들른 것 같습니다. 한 15년 이상 흐른 것 같네요. 참배하러 온 그때가 여름이었을 겁니다. 퇴락한 절 경내에 참배객들이 몇 분 있더군요. 마을 집들이 바로 절 앞에 있었지요. 현재의 대웅보전이나 새로운 요사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허물어진 마조 스님 탐만 하나 남아 있었어요. 참배를 하기 위해 여기를 다섯 번재가 여섯 번째 들리는데, 중국이 지금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이곳 마조 스님 회상도 변화가 많아요. 불학원이 개원되어 많은 스님들이 보이고, 중국 스님 네들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으니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강서 감강 일대가 마조 스님의 주요 무대라고 밝힌다. 뿐만 아니라 회양 선사 회상에서 깨달은 마조 대사가 그곳을 떠나 강서의 남창(옛 홍주)과 그 언저리에서 교화를 펴듯 호남의 석두 희천 제자들도 고안 땅을 거쳐 자연스럽게 남창을 오갔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순례자 일행도 석두와 마조 문하의 양쪽 선승들이 머물던 선풍(禪風)이 깃든 땅에 와 있는 셈이다.

“마조 스님이 열반지로 택한 이곳도 선종사적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 중의 하나지요. 여기 지세도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장히 평이하지만 한국의 어떤 지형을 닮은 것 같아요. 산 이름이 석문산, 돌 석자 문 문자가 붙은 것을 보면 어디에 석문

이 있는 산 같기도 한데 그런 구조물이 보이지 않으니 왜 석문산인가 하는 호기심이 듭니다. 그러나 절 이름으로 보면 보배 보(寶)자에 봉우리 봉(峰)자가 붙어 있습니다. 마조 스님 뒤를 이어 주지를 사신 녹담 스님의 법호도 보봉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절 뒤의 산봉우리를 보봉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법당에 들어 참배를 하고 나온 순례자 일행은 곧바로 대웅보전 뒤편에 자리한 마조 대사의 사리탑으로 향한다. 사리탑 뒤편은 활기가 왕성한 왕대나무 숲이다. 순례자 일행이 마조 대사 사리탑 앞에서 선 채로 참배를 하자마자 왕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온다. 그러자 하면 새들은 새들대로 이국의 낯선 손님에게 노래를 들려준다. 문득 잡념이 사라진 머릿속으로 시상(詩想)이 청량한 대나무바람처럼 스친다.

대숲을 나는 새는 순례자 위해 무정설법으로 맞이하고 스님은 입이 없는 마조 대사 앞에 서서 두 눈 깜빡하며 법계량하네.

수불 스님이 참배를 마친 순례자 일행을 위해 또 야단법석을 피신다. 간단한 마조 대사의 행장에 이어 ‘평상심이 도다(平常心是道)’라는 대사의 기풍을 덧붙인다.

“성이 마 씨인 도일 스님께서는 저 사친성 시방현에서 709년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그곳의 나한사로 출가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정중종의 입장에서 출해 788년 79세로 여기 보봉사에서 열반에 드신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열반 터를 미리 정하고 한 1년여 주석하시다가 열반에 드신 것이지요.”

마조 스님은 생김새가 특이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우렁호시(牛行虎視), 소처럼 느리게 걷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예리하였고 긴 혀는 코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발바닥에는 윤상(輪相), 바퀴무늬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지요.

마조 스님이 35살쯤에 처음으로 개당한 곳은 북건성 건양의 불적령(佛跡嶺)이라 해요. 이후 강서성 저 남쪽 감주의 공공산으로 가서 교화를 펼 뒤 남창의 개원사에 주석하시다가 이곳으로 오셨지요. 공공산에는 지금도 서당 지장 회상의 탑이 있어요. 마조 스님이 남창 개원사로 가신 것은 지방의 최고관

리가 초빙을 했던 때문이지요. 스님은 수많은 도인을 길러냈지요. 일설에는 89명을 깨닫게 했다고도 하는데 그뿐이었습니까. 139명이라는 설도 있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을 지닌 분이었으니까요.

마조 스님은 늘 ‘평상심이 도(道)’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가시가 박혀 있다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안목으로 ‘평상심이 도다’를 이해하여 소화하려고 한다면 목구멍에 얽히거나 걸려서 당할 수가 있어요. ‘평상심이 도다’를 잘 소화할 힘만 있다면 공부를 마친 거지요. 소화를 못하니가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심이란 ‘일상의 마음’이 아니라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의 ‘본래 마음’을 말하는 줄 알고 있는데 수불 스님의 정의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마조 스님은 상당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도는 닭이 익힐 필요가 없다. 오직 더러움에 물들지만 않으면 된다. 더러움에 물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나고 죽는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번란 짓을 벌이는 것을 바로 더러움에 물든다고 하는 것이다. 단번에 도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평상의 이 마음이 바로 도다!”

평상의 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일부러 짐짓 꾸미지 않고, 이리저리니 가지 판단을 하지 않으며, 마음에 드는 것만을 좋아하지도 않고, 단견상견(斷見常見)을 버리며, 평범하다느니 성스럽다느니 하는 생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킨다.”

이어서 마조 스님은 도라고 하는 것은 법계(法界)를 이르는 말이라고 설한다. 강가의 모래가 그다운 구실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법계를 따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금모래 은모래가 제 자리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도 법계의 일이라는 말씀이다. 그렇다. 법계를 자주 벗어나려고 헛걸음 질하는 허망한 존재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나같은 중생이 아닐까 싶다.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 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 백옥 · 청옥 · 자수정 · 호한석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달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얼드림(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인터넷 쇼핑을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